

2015 새 설계

문 동 신 군산시장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노는 도시 만들 것”

CCTV 확충 등 기반 조성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총력

문동신 군산시장은 “올해 시정의 최우선 핵심가치를 ‘어린이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어린이가 뛰노는 도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TV 확충과 횡단보도 정비, 아동 안전지도 제작 등을 통한 아동범죄 제로화와 안전망 구축, 체험형·현장형 안전교육 체험시설 구축을 통한 어린이 안전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시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 문 시장은 “국가 및 새만금 산단내 첨단소재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플라즈마 기술연구센터와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등 차세대 전략산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며 “안전적 기업활동을 위한 기업사상 과제를 더욱 업그레이드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더욱 활성화시켜 근대역사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해 나간다. 시는 보유하고 있는 여러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근대역사경관 2 권역(일해육 권역) 등에 근대화도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한다. 또 새만금과 고군산을 연계한 사계절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자원 등을 개발하고, 근대문화유산과 선유도,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육성해 힘쓸 예정이다.

서울상인 횡포에 해남 배추농민 ‘눈물’

밭떼기 잔금 미뤄 31명 피해

배춧값 폭락과 상인들의 횡포로 해남 배추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일 해남군과 배추재배 농민들에 따르면 상인들이 배추를 밭떼기로 사놓고 잔금을 주지 않는 데다가 수확을 하지 않아 양파 등 후속작물도 심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요 잔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상인들은 배춧값을 모두 치른 뒤 수확하기로 계약했지만 그나마 상태가 좋은 건 주인 허락도 없이 썩숙 뽑아 가 버렸다. 한 배추 재배농민은 “잔금은 주지 않고 주인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전부 밭떼기로 지금까지 팔아버렸다. 돈을 주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상인들은 한 달, 또 한 달 뒤로 미루는 등 시간만 끌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봄을 부르는 배추흰나비들의 군무. 입춘을 사흘 앞둔 1일 함평군 농업기술센터내 비발하우스에서 배추흰나비들이 화려한 군무로 봄을 재촉하고 있다.

무안경찰 아동학대 근절 간담회

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는 지난 29일 경찰서 사회의실에서 무안군 어린이집연합회 집행부와 어린이집 원장, 공·사립 유치원장, 무안군 주민복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아동학대 범죄예방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무안경찰은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어린이집(63개소), 공·사립 유치원(20개소), 아동 양육시설(1개소) 등 총 8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 금연클리닉 인기폭발

담배값 인상 후 등록율 폭증 전문가 상담·보조제 등 지원

최근 정부에서 담배값 인상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남도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894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4% 늘어난 수치다. 시·군별로는 장흥이 무려 4배가 넘는 360.5%가 증가했으며, 완도(300%), 곡성(230.8%), 목포(200.6%), 강진(181.7%) 등이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 이달 말부터는 가까운 보건소·지소는 물론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상담과 금연 보조제가 포함된 금연 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대상자별로 니코틴 의존도 평가, CO(일산화탄소) 측정, 혈압 측정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분석하고, 흡연 습관이나 기간에 맞춰 무료로 금연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달 남도 전통술에 함평 ‘자희향 국화주’

은은한 국화향 개운하고 깔끔

전남도가 2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술로 함평(유자희자양)의 ‘자희향 국화주’를 선정했다. 자희향 국화주는 ‘차마 마시지 아깝다’는 석탄주(借呑酒)다. 백복담 명인(한국전통주연구소장)의 30여 년 연구 결과를 받아 노영희 대표가 5년의 노력 끝에 자연의 맛을 살린 현재의 자희향 국화주를 탄생시켰다.

를 사용하지 않아 맛이 개운하고 깔끔하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500ml 1병 기준 2만 원. 노영희 대표는 “국내산 친환경 찹쌀과 황국화를 사용해 전통적 제조방법으로 주조해 맛과 향을 고스란히 담은 프리미엄 전통주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난해 남도술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삼성급을 사장단 만찬주 및 서울 국제 식품산업대전 견배주로 선정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이달부터...각종 민원 해결

영암 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림피해와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이달부터 2015년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한다. 전문 임업기술을 습득한 기술인 5명으로 구성된 ‘숲가꾸기 패트롤’은 광주·전남 서부권 1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주요 도로변 등 산림내 덩굴류·고사목·병해충 피해목 제거 ▲주거지·농경지 주변 등 생활권내 산림 피해목 제거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등 각종 산림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재해 예방·복구 활동 등 각종 산림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에 산림민원 106건을 처리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숲가꾸기 패트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영암 국유림관리소(061-470-5343)로 연락하면 된다. 타인의 소유로 임목벌채 등으로 다툼이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금당공인중개사. 저하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투자 매도 교환, 이진해 갈 물건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농지 / 임야

1%대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뭉치돈이 몰린다!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 노려, 7억원을 투자하고 매월 400만원씩을 꼬박꼬박 받는다!

법원경매, 부동산 재테크 전문, 다와옥션 김용희부장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